



고창경찰서, 노쇼 사기 피해 예방 업무협업 간담회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지난 29일, 고창군청·고창병원과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간담회는 고창군 관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쇼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쇼 범죄유형으로 피해업체에 전화를 걸어 군청직원이라고 속이며, 가짜 업체를 소개시켜 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게 하면서 가짜업체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번 유관기관 간담회는 노쇼 사기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되풀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창군청 행정과장 최순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향후 긴밀한 협조로, 사칭되는 주요 기관 상대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한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 대응 방안 추진을 협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소방서, 고강도 재난현장 대비 체력측정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29일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체력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력측정은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초체력을 점검하고, 개인별 체력 수준을 확인해 효율적인 체력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측정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력·근지구력·유연성·순발력 등 지루 수행에 필요한 체력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고강도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체력을 점검함으로써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정기적인 체력측정과 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경찰서, 도로노면표시 반사성능 합동점검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승)는 29일 임실군 관내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 신덕면 수월로 등 면도, 청웅석전로 군도를 대상으로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를 위한 반사 성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 강화 점검으로 전북청, 도로관리청(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노면표시 황색실선 백색실선 반사 성능을 점검 및 정비하고 도로의 시인성 강화 하여 주·야간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에 있다. /임실=김종영 기자

순창군, 적정시비 실천 결의대회 개최

토양 검정 기반 비료 사용 확산... 농업인·기관 함께 실천 의지 다져

순창군은 29일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사용처방 기반 적정시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시비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비료 절감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농촌지도자 등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생활개선회 회장이 대표로 적정시비 현장실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함께 따라 읽고 '적정시비 실천하자' 구호를 외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함께 참여해 현장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 주체와 지도기관이 공동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순창군은 29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과 농기술센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사용처방 기반 적정시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따라 향후 적정시비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비료 수급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대책,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 방법, 비료사용처방 활용 방안 등 현장 실천 기술이 안내됐다.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는 각종 농업 지원사업 추진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되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관련 상담과 처방서 발급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종합분석실(☎063-650-5628)에서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병원, 신생아 심폐소생술 심포지엄 성료... 응급 대응 역량 강화

전북대학교병원이 신생아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만 현장의 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 의료진 역량 결집에 나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9일 어린이병원 완산홀과 기린홀에서 '2026년 전북 신생아 심폐소생술(NRP)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료진을 비롯해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최신 의학 지식을 공유하는 이론 강의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론 강의에서는 자연 결찰과 신생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등 핵심 내용이 다뤄졌다.

실습 교육에서는 초기 처치, 양압 환기, 기관 내 삽관 등 분만 직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술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네킨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실전형 교육이 이



뤄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실제 응급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교수는 "신생아 심폐소생술은 출생 직후 아기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료 행위"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아져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전북 대표 출전

남원소방서는 오는 5월 11일,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남원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전북 대표로 출전함에 따라 막바지 집중 훈련과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소속 5명 정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단체 종목인 '화재진압 4인조법' 부문에 출전, 지휘관을 포함한 4명의 대원이 신속하게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점령을 거쳐 표적을 정확히 주수해 쓰러뜨리는 화재진압 능력을 평가하는 종목이다.

이날 대원들은 실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빠른 몸놀림과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전국대회 입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힐링 나들이

김제시는 29일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순천 일대에서 '힐링 봄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작업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근로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를 방문해 계절 식물을 관람하고 산책 활동에 참여했으며, 조별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 성료

김제시는 2026 전국 어린이 꿈나무 태권도대회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승인하고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최권열)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선수 3,1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참가종목은 겨투기와 품새이며, 지난 25일 품새종목을 시작으로, 26일부터는 겨투기 종목이 열렸다.

이번 대회 기간동안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연일 손님으로 만원사세를 이뤘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을 도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50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